

왕의, 이란 핵문제 관련

중국측 다섯가지 주장 제기

3월 14일, 중공중앙 정치국 위원이며 외교부장인 왕의는 이란 핵문제 중로이(中俄伊) 북경회담에 참석한 로씨야 외교부 부부장 리아브코프, 이란 외교부 부부장 가리브아바디를 회견하고 새로운 상황에서 이란 핵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중국측의 다섯가지 주장을 제기했다.

첫째, 정치와 외교적 수단을 통해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견지하고 무력 사용과 불법 제재를 반대한다. 각국은 공동적이고 포괄적이며 협력적이고 지속가능한 안보관을 견지하여 대화와 협상을 재개할 수 있는 조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둘째, 권한과 책임의 균형을 유지하고 핵 비확산 및 평화적 핵에너지 리용 목표를 통합적으로 추진한다. 이란은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계속 준수해야 하며 각국은 이란이 핵확산금지조약의 제약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평화적 핵 리용 권리를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셋째, 이란 핵문제 포괄적 합의

의 틀을 기반으로 새로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을 견지한다. 중국측은 각국이 서로 협력하여 조속히 대화와 협상을 재개하기를 희망한다. 미국은 정치적 진정성을 보여주고 조속히 재협상에 복귀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화를 통해 협력을 촉진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개입을 강요하는 것을 반대한다. 현재 상황에서 안보리의 성급한 개입은 각국이 신뢰를 구축하고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신속한 제재 회복'을 시작하는 것은 수년간의 외교적 노력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다섯째, 단계적 대응 원칙을 견지하고 협상일치를 통해 공감대 달성을 추구한다. 역사적 경험으로 보면 이른바 실력과 위치에서 출발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상호 존중의 정신을 견지해야만 각측의 합리적인 우려를 고려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찾아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다.

/ 신화넷

외교부 :

이란 핵문제 북경회담은  
정치적 해결 위한 유익한 시도

중국, 로씨야, 이란은 14일 북경에서 회담을 열어 이란 핵문제를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외교부 대변인 모닝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북경회담은 중로이가 이란 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유익한 시도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측은 각측과 함께 공정하고 균형적이며 지속가능한 이란 핵문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모닝은 3국은 정치·외교적 접촉과 대화만이 효과적이고 시행가능한 유일한 선택지임을 거듭 천명하며 관련 당사국이 제재와 압박, 무력과 위협을 버리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 신화넷

주카나다 중국대사관

캐나다에 엄정한 교섭 제기

캐나다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14일 캐나다 외교부가 이날 주요 7개국(G7) 외교부장회의의 공동성명 및 해상 안보·번영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성명과 선언은 또다시 구태의연한 말을 되풀이하면서 객관적인 사실과 중국의 엄정한 입장을 무시한

채 중국 내정에 거칠게 간섭하였 다. 중국을 악의적으로 모독하고 먹칠하였으며 행간에는 오만과 편견, 중국을 억제하고 중국을 반대하는 음험한 속셈으로 가득차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며 이미 캐나다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

/ 신화넷

뿌진, 트럼프와의 회담 제안

중국 : 관련 보도 주목

보도에 따르면 로씨야 대통령 뿌진은 로씨야와 우크라이나의 립시 휴전 협정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모닝은 14일 “중국은 관련 보도를 주목하고 있다.”면서 “각국이 대화를 통해 공정하고 지속적이며 구속력이 있고 각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모닝은 이어 “우크라이나위기 문제에 대해 중국은 습근평 주석이 제안한 ‘네가지 원칙’을 항상 고수

하고 있다.”며 “각국의 주권과 영토완정은 존중되어야 하고 유엔헌장의 목적과 원칙은 준수되어야 하며 각국의 합리적인 안보 우려 또한 중시되고 평화적 해결에 도움이 되는 모든 노력은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함께 궁극적으로 위기를 해소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 국제방송

[국제시평]

‘대만독립’ 활동은 반드시 실패한다

“실질적인 ‘대만독립’ 활동가”라고 자칭하는 중국 대만지역 지도자 궈청덕은 또다시 쓸데없는 공문을 썼다.

지난 13일, 그는 이른바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개최한 후 연설을 통해 량안은 ‘서로 예측되지 않는다’는 분렬된 론리를 다시 한번 선전하며 ‘대만은 주권독립 민주국가’라고 망언하고 대륙의 ‘다섯가지 위협’을 과장하며 이른바 ‘17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독성’이 강한 이 도발적 발언은 ‘92공통인식’을 전면 부인하고 량안 교류를 완전히 차단하려는 완전한 ‘록색테로’ 선언서로서 반평화, 반교류, 반민주적인 사악한 본질을 드러내며 대만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 발언의 가장 악랄한 점은 중국 대륙을 ‘경의 적대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궈청덕이 과거에 왜쳤던 ‘신량국론’과 비교하면 이는 ‘독립’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일부 평론가들은 궈청덕의 위험한 언행은 ‘법리적 대만독립’을 향한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궈청덕의 이른바 군사재판제도의 복원과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대만 국민의 증명서 ‘점검’, 량안간 인적 교류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량안 경제 및 무역 구조조정 등등의 대응책은 대만 사람들을 경악케 한다. 일부 분석가들은 궈청덕이 공공연히 ‘록색테로’를 일으켜 량안 교류 공간을 억제하고 대만의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대만을 지난 세기의 계엄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17가지 전략’이 실행되면 대만을 ‘죽음의 길’로 이끌 것이다.

이처럼 ‘위험한 폭탄’을 던지려고 궈청덕은 오래동안 음모를 꾸몄다. 취임한 지 거의 10개월이 지난 지금 궈청덕의 관리 무능으로 섬내에는 불만이 끓이지 않고 있다. 그는 계속해서 중국 대륙의 ‘무력통일’ 위협이 림



중국의 대만성 대륙시

/ 자료사진

박했다고 과장하고 모순을 전이하려고 시도하며 ‘록색테로’ 분위기를 리용해 반대파를 공격하고 섬내 ‘대청소’를 진행하여 권력을 더욱 강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외부 요인을 보면 미국 새 정부는 출범 이후 대만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며 대만을 보호할 것이라는 공개적인 약속을 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우크라이나위기 문제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급변하면서 궈청덕은 대만도 ‘버림받음’ 자식’이 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산 무기 구매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미국에 대한 대만적체회로제 조주식유한회사(台积电)의 1,000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하는 등을 통해 궈청덕당국은 미국에 아부하는 한편 위협을 무릅쓰고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키며 자신의 리용가치를 높이려고 시도하고 있다.

궈청덕이 이처럼 ‘대만 파괴’ 씨나리

오를 작성하고 여러측에 구걸을 해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사실은 개변하지 못할 것이다. 대만은 종래로 한개 국가가 아니었다. 유엔에서의 대만지역의 유일한 명칭은 ‘중국 대만성’이다. 최근 대만의 많은 연예계 인사들은 웨이보에 ‘중국 대만성’이라는 글을 올리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하고 국가에 대한 인정을 표명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은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공감대이며 183개국은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수교했다. 민진당당국은 최근 몇년 동안 이른바 ‘수교국’ 10개를 련이어 잃으면서 대외활동 공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 14일, 중국 대륙에서 〈반분렬국가법〉 시행 20주년 좌담회가 열렸다. 이 법률은 “국가는 ‘대만독립’ 분렬세력이 그 어떤 명목이나 방식으로 대만을 중국에서 분렬시키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

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의 내부 문제로서 어떠한 외국 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분렬 및 반간섭 투쟁을 전개하는 데 충분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보장을 제공했다.

대만 문제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결될가? 중국 대륙은 이미 최대한의 성의와 최선을 다해 평화통일의 전망을 추구하겠다고 명확히 밝혔다. 하지만 만약 ‘대만독립’ 분렬세력이 도발하여 레드라인에 근접하거나 심지어 이를 넘는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궈청덕과 같은 자들이 대만해협의 긴장을 고조시킨다면 결국은 자신이 지른 불에 스스로 타죽게 될 것이다. 중국은 궁극적으로 통일될 것이고 또한 반드시 통일될 것이다. 이는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대세이다.

/ 국제방송

미국 : 예멘 후티무장 지도자 여러명 사살



16일, 후티무장 보건당국은 미군의 공습으로 최소 3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 중앙방송중국

15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예멘 후티무장에 대해 ‘단호하고 강력한 군사행동’을 취할 데 관한 명령을 내렸다고 선포했다.

16일, 미국 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왈츠는 미군이 15일 예멘을 공습하는 과정에서 후티무장 지도자 여러명을 사살했다고 말했다.

이날 왈츠는 예멘에서의 이번 미군의 행동은 이전과 두가지가 다르다며 “첫째는 후티무장 지도부를 겨냥한 것이고 둘째는 이란의 후티무장을 지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예멘 후티무장은 수도 사나, 북부 사다성 등이 15일 밤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다. 16일, 후티무장 보건당국에 따르면 공습으로 최소 31명이 사망하고 101명이 부상을 입었다. 후티무장은 ‘더 업그레이드된’ 행동으로 대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티무장은 현재 예멘의 령토 약 3분의 1과 인구 70~80%를 통제하고 있으며 사나와 홍해의 중요한 항구도시 호데이다를 차지하고 있다. 후티무장 통제구역은 또한 예멘의 약 3분의 2의 홍해 연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통제력은 전세계 해운에서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가진 만데해협을 아우르고 있다.

후티무장 : 홍해서 미 항공모함 및 수행함 공격

16일, 예멘 후티무장은 후티무장 목표물에 대한 미군의 대규모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이날 홍해에서 미국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와 그 수행함에 대해 군사타격만 가했다고 밝혔다.

예멘 후티무장 대변인 예하이야 사레아는 이날 이 조직이 장악한 마시라 텔레비죤방송에서 성명을 발표, 미군이 15일 이후 예멘에 최소 47차례 공습을 가했으며 수도 사나와 다른 7개 성을 공격해 여러명의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이 조직은 16일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18발과 공격용 무인기 1대를 리용해 홍해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 ‘해리 트루먼’호와 그 수행함을 공격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이 조직은 홍해와 아라비아해의 모든 미국 군함에 대해 ‘망설임 없이’ 공격을 감행할 것이며 가자지구가 인도적 지원을 받기 때까지 정해진 작전구역(홍해, 아라비아해, 아덴만 및 만데해협)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해상 봉쇄를 계속 실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신화넷

미국 항공우주국

2024년 해수면 상승 속도 예상치보다 빨라

13일, 미국 항공우주국은 공보를 발표하여 위성사진 감시 수치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해수면 상승 속도가 예상치보다 빨랐으며 그 주요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의 열팽창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항공우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24년 해수면 상승 속도는 연간 약 0.59센티미터로 당초 예상치인 0.43센티미터를 웃돌았다. 미국 항공우주국 제트추진연구소 해양학자 조시 윌리스는 해수면이 계속 상승하고 또 가속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보에 따르면 1993년 위성 관측

수치를 수집한 이후 2024년까지 30여년 동안 해수면은 총 10센티미터 이상 상승했다. 또한 최근 수년간 해수면 상승의 3분의 2가 육지의 빙하·빙상이 녹은 물 때문이며 나머지 3분의 1 가량은 해수의 열팽창으로 인한 것이다. 다만 2024년에는 이 상황이 역전돼 해수면 상승의 3분의 2가 해수의 열팽창에 기인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올초 미국 항공우주국은 2024년은 기록상 가장 더운 해였으며 지구는 온난화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 신화넷



2024년 6월 22일, 노르웨이 스발바르군도에서 포착한 빙산. / 신화넷

